

검찰 '정상문 12억' 추궁 盧 압박

비자금 조성 경위·목적 집중 수사 盧측, 영장 재청구 촉각... 진상 파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시기가 늦춰지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숨가쁘게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막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당분간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비자금 12억원 조성 경위와 목적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명계좌의 명의자이자 정 전 비서관의 지인인 2~3명을 불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정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자 바깥 긴장하는 모습이다.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진술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3억원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입금되고, 정 전 비서관이 재임 시절 청와대 공금 12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수사 결과까지 나오자 행여나 불똥이 봉하마을로 튕까 우려하면서 진상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과 접촉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실장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권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해명을 했다는 검찰 측 설명을 반박했다.

설령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 부터 받은 3억원이 아닌 '제3의 돈' 3

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권 여사 입장에서는 박 회장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권 여사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억원에 대해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또 연일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공표하는 검찰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료를 추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날 강한 비랍을 동반한 비로 21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주창장 터에 설치된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구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盧 전 대통령 "저의 집은 감옥"... 과잉취재 불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1일 "안마당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유, 걸으면서 먼 산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최소한의 사생활이라도 돌려주기 바란다"며 언론의 과잉취재 자체를 당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사립사는 세상'에 올린 "저의 집 안팎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론에 호소한다"는 말을 반

복하면서 "저의 집 안팎은 제게 남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라고 호소했다.

현재 봉하마을에는 박연차 게이트가 터진 이후 기자들이 상주하다시피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주변인물을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마을 주민과 마찰을 빚기까지 했다.

그는 "저의 집은 감옥"이라고 표현한 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 없다"며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오래됐다. 이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라며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화단이나 마당, 실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이나 화면으로 찍힌 사례를 거론한 뒤 "가끔 보고 싶은 사자바위 위에서 카메라가 지키고 있으니 그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전주 뺀 3곳중 2곳 승리면 선방 민주당 부평을·전주 완산갑 당선땀 승리

여야 재보선 승패 셈법은

4·29 재보선이 혼전을 거듭하면서 여야의 '승패 셈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목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주 덕진과 완산 갑 등 호남지역 2곳을 제외한 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경북 경주 등 3곳에서의 승리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이뤄진다면 이번 재보선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3곳에서 승리하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3곳 가운데 2곳에서만 승리해도 '한나라당의 패배보다는 선방'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승리할 2곳이 어디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전망이다.

"2곳 승리"를 가정할 경우, 민심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받는 인천 부평을과 '친이·친박'의 대리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주에서 승리할 경우, 한나라당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가는 셈이다.

그러나 3곳의 격전지 가운데 1곳에서만 승리할 경우 재보선 승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전망이다.

'1승'만을 거뒀을 경우 전반적으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여야간 최대 승부처인 부평을에서 승리할 경우 '민심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부평을과 전주 완산갑에서 이길 경우를 '재보선 승리'로 보고 있다.

정몽준 전 장관이 출마한 전주 덕진은 사실상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전주 완산갑에서의 '무소속 연대 바람'을 차단하는데 민주당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달리 부평을, 전주 완산갑 2곳 가운데 1곳에서만 승리를 거둘 경우 당내 평가는 복잡해지면서 내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평을 1곳에서의 승리를 '재보선 선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호남이라는 텃밭을 잃었다는 지적이 배 아프다.

또, 부평을에서 패배하고 전주 완산갑에서만 표심을 얻을 경우에는 좀더 보수적인 반응이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가치를 내건 'MB 정권 심판론'이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보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친노 386 지도부" Vs "참여정부 황태자"

鄭-민주 상호 비방 점입가경

민주당과 4·29 전주 덕진 재선에 무소속 출마한 정동영 후보 간의 상호 비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호남 텃밭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정 후보는 21일 전주 완산갑에서 무소속 연대를 이루고 있는 신 건 후보와 함께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의 부당 불가 방침에 대해 "무정체성, 무정책, 무리타심"의 '3무(無)'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가 또 한번 '정동영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전방에 이어 이를테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의 것이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의 것이며, 복당을 결정할 유일한 근거는 바로 당원과 전 주 시민에게 달려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에 돌아가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로부터 당을 뺏겼고 당이 민주개혁세력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

들겠다"고 복당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주류측은 '복당 불가'를 재확인하면서 '정동영 때리기'로 맞불을 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룸을 통해 정 후보의 '친노386 지도부' 비판에 대해 "실체없는 정치공세라는 것을 정 후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참여정부 황태자는 바로 정 후보 아니다. 이제라도 당을 분열시키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의 감정싸움이 심화되면서 공천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당내 인사들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당장, 재보선 이후, 복당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 후보가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측의 충돌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재보선 이후의 민주당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조례안 발의 흠피 등에 입법예고"

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1일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입법예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회의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듣거나 반영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원 의원은 "지방의원 유급화로 의원들의 조례안은 급증했지만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도록 입법예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www.inseong.or.kr

·일: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참석대상: 광주 인성고 13회 동업생 및 20년전 은사님
·장: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광주 인성고 동동무회 양영 이사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강친규 TEL: 011-614-0898 최성훈 TEL: 011-611-0442 송상훈 TEL: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www.inseong.or.kr

·일: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장: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박현욱

·1부행사: 축구, 배구, 탁구, 동대리기, 400m계주
·2부행사: 토링가드 공연, 각기동 당기타령, 레크레이션
·특별행사: 기동대형게임, 행운권추첨, 어린이 동시낭송대회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사무실 연락처 062)603-3833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 합격시스템	1년 과정	순경공채	특채
6개월과정	2개월 과정	남·1차: 966명	남·1차: 240명
2개월 원성 3회 반복 학습	2개월 원성 6회 반복 학습	여·1차: 40명	2차: 47명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합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합	101단·1차: 120명	2차: 120명
수강료 50% D/C	수강료 25% D/C		

※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

경찰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쏙직렬

30.40 주부반모집합회 행정고시관감점점마철교보보간복소기 8395부
합격이 보장되는! 정행무제사원찰약공정호진호지방술 5년간 소방인력 총합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원: [국립직 9급 2320명, 7급 600여명 공채]
·시험일: 지방직 9급 8월23일, 7급 9월26일 시행
사술7-9급 7월18일, 기술직 8월 5일 17일예정

개강 5주 1회 (주야 3회반 도입) (현재상담인수중)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철학, 민사법, 형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 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명곡산2000여㎡ · 24시간
·인타프리카(비) · 자취부여
·맞춤식 학원생 최선시설!
·세월 특유일 객의 교외에 있다!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

직장인, 주부, 학생을 위한

공인중개사 주말반 국비 환급 100%

▶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 출석부 관리, 숙제, 쪽지 시험 시행
▶ 학문각 교재, 동영상30%DC
▶ 기출문제 풀이(수요암민법, 목요일개론, 오후 3시~5시)

개강 명일반 5월 1일(금) 주말반 4월 25일(토)

광주 박문각 본원만의 합격비법 전수 상무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전국 최대, 최고의 합격생 배출현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 0621529-8838

·위치: 유원동 광일고 옆 삼애신림 2층